‘본디나’ 첫 팝업…‘템플 위크’ 함께

6월 5~16일 더현대 서울서
문화사업단 전통문화 브랜드
전통 담아낸 불교굿즈 선봬
사찰음식, 차명상 체험 진행
명장 선재 스님 등 참여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의 자체 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가 첫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연다. 더불어 사찰음식과 차명상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 위크(TEMPLE WEEK)’도 함께 진행된다.

문화사업단은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가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6월 1일 밝혔다.

‘본디나’는 문화사업단이 선보이는 전통불교문화 브랜드로,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와 전통미를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접목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고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통문화를 단순히 ‘보는 문화’를 넘어 직접 사용하고 즐기는 ‘생활문화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6월 5~16일 더현대 서울 6층에서 열리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전통불교문화 브랜드가 대중적인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전통문화와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본디나’는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불교문화의 가치, 그리고 감성적인 디자인을 결합해 젊은 세대와 외국인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안할 예정이다.

‘본디나’ 제품은 연꽃, 단청, 단주, 사찰의 색감과 문양 등 한국 전통불교문화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전통의 의미와 미학을 담아낸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상품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제품 판매와 함께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인 ‘템플 위크’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템플 위크’ 행사는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불교문화의 전통과 정신적 가치를 소개하고, 일상 속 쉼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되는 만큼,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를 보다 현대적이고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사찰음식과 차명상 프로그램 등 한국불교문화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찰음식 프로그램에는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과 사찰음식 장인 법송 스님이 참여해 자연과 수행의 철학이 담긴 건강한 음식문화를 소개한다.

차명상 프로그램에는 혜원 스님과 영조 스님이 참여해 차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과 예약 방법은 추후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된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합장주·연꽃등 만들기 등 상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문화사업단 브랜드 ‘본디나’는 한국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국내외 대중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탄생한 브랜드”라며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통불교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템플 위크는 한국불교문화가 가진 치유와 전통의 가치를 보다 많은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며 “도심 속에서 한국 전통불교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사찰음식 명장 ‘한자리’…특강 열린다

무형유산 1주년 맞아
문화사업단, 7월~9월
‘사찰음식 명장 특강’
명장 스님 6인 참여해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의 특강이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사찰음식 명장 특별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월 2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음식은 불교의 생명존중과 절제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찰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 전승되어 온 전통 식문화이다. 특히 제철 식재료와 발효문화를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수행문화이자 생활문화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일반 대중이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을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됐다.

이번 특별강연·체험에는 선재·계호·적문·대안·정관·우관 스님 등 사찰음식 명장 스님 6인이 참여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명장 스님들의 대표 사찰음식을 직접 배우고 맛보는 것은 물론,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와 철학, 사찰 공동체의 음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경험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체험을 넘어,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 속에 담긴 감사와 절제, 생명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사찰음식이 단순한 채식이 아닌, 자연과 공존하며 마음의 균형을 돌아보는 수행문화라는 점을 체험 중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강의는 7월 3일 오후 2시 적문 스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7월 4일 오후 2시 계호 스님 △7월 18일 오후 2시 선재 스님 △8월 4일 오후 2시 정관 스님 △8월 11일 오후 2시 우관 스님 △9월 8일 오전 10시 대안 스님의 특강이 이어진다.

한편 ‘사찰음식 명장 특별강연’ 프로그램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 예약은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사찰음식 홈페이지(https://www.koreatemplefood.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㊸ 다선일미(茶禪一味)

맑은 찻잔에 밝은 달이 뜨네

茶 禪 一 味

동자승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햇살 고운 산사, 고요한 시간, 선승은 그토록 간절했던 화두마저 잠시 내려놓는다. 돌샘에서 길어 올린 물로 차를 달이면 맑고 그윽한 연초록 향기가 피어오른다. 수류화개(水流花開)의 소식이다. 물은 흐르고 꽃이 필 뿐이다.

차의 정신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이는 당나라 시인 노동(盧仝, 790~835)이다. 그는 ‘칠완다(七碗茶)’에서 차가 몸과 마음에 일으키는 파동을 이렇게 노래했다.

“첫 잔은 목과 입술을 적시고, 둘째 잔은 고독을 깨트리네. 셋째 잔은 뱃속을 훑어 묵은 문장을 찾아내고, 넷째 잔은 땀이 나니 평생의 불평도 흩어지네. 다섯째 잔은 뼈와 살을 맑게 하고, 여섯째 잔은 신선의 마음과 통하네. 일곱째 잔은 마시지 못하겠구나. 양 겨드랑이에 맑은 바람이 일어 봉래산이 여기로구나.”

이 ‘맑은 바람’의 경지를 선과 연결한 이는 교연(皎然, 730~799) 선사다. 그는 〈다경(茶經)〉의 저자 육우와 평생을 교유하며 시와 차를 논했던 당대 최고의 문인이자 선승이었다. 교연에게 한 잔은 세속의 먼지를 털어내는 무심의 수행이었다. 선의 고요함과 차의 맑음이 둘이 아님을 꿰뚫어 본 것이다.

한국 다도의 중흥조인 초의 선사(1786~1866) 역시 차 한 잔에서 중정(中正)의 도를 보았다. 그는 차가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본연의 맛을 지녔다고 찬탄하며, 찻잔 속에 우주의 이치를 담고자 했다.

“산방에 손님 없어 고요한데/ 솔바람 소리 속에 차 달이는 연기 피어오르네/ 한 잔 차에 세상의 시끄러움 씻어내니/ 내 마음은 예와 지금이 다를 바 없구나.”

그가 추구한 것은 차를 통해 마음을 맑히고 삶의 중심을 세우는 선의 경지였다.

그러나 오늘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화려한 먹방과 자극적인 음식, 밤늦도록 이어지는 술자리는 설근(舌根)이 미경(味境)을 대하는 방식을 흐트러뜨린다. 불교의 십이처(十二處) 수행에서 설근과 미경이 만나는 찰나는 단순한 감각의 순간이 아니다. 그 한순간의 접촉은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다.

혀끝에 머무는 차의 맛 또한 단순한 미각적 자극이 아니다. 그것은 설근과 미경이 만나는 찰나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는 수행이다. 시인이 찻잔 속의 달을 마시듯, 우리는 한 잔의 차로 마음의 뜰을 가꾼다.

일본의 시인 마쓰오 바쇼(1644~1694)는 찻물이 끓는 소리를 솔바람에 비유하며 그 미세한 울림 속에 우주를 담았다.

“차 끓는 소리, 솔바람이 부는 듯한 고요한 밤.”

〈화순 불암사 주지〉

태국 불교유산, 큐레이터에게 듣는다

국립중앙박물관, 6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태국 주요 불교유산의 면면을 전문 큐레이터에게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6월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18:00~21:00)에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6월에는 특별전시실과 상설전시관, 보존과학센터에서 총 12개의 해설이 진행된다.

먼저 국내 최초로 태국 문화와 미술을 소개하는 특별전인 ‘어메이징 타일랜드:태국미술명품전’의 전시 해설이 예정되어 있다. 선사시대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태국의 역사와 미술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로, 6월 24일 오후 6시에 특별전 기획자의 전시 기획 의도와 주요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설전시관에서도 다양한 해설이 이어진다. 6월 10일 오후 6시 3층 조각공예관의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에서는 ‘성덕대왕신종의 소리’라는 주제로 청동 종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들어볼 수 있다.



태국 불교유산 ‘걷는 부처’.

전시관 1층 선사고대관 구석기실에서 진행하는 ‘기후 변화와 인류의 역사’(6월 17일 오후 6시)에서는 초기 인류가 겪은 기후 변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해온 인류의 역사에 대해 살펴본다.

신중일 기자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고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진다면

『법화경』 공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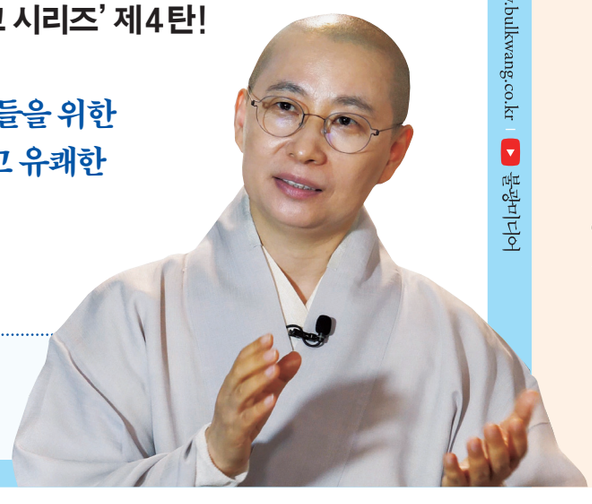
원영 지음
336쪽
18,000원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원영 스님의 법화경



불교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불교 공부 일타강사 원영 스님의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시리즈’ 제4탄!

『법화경』이 어려웠던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뭉클하고 유쾌한
『법화경』 강의!



2026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원영 스님 특별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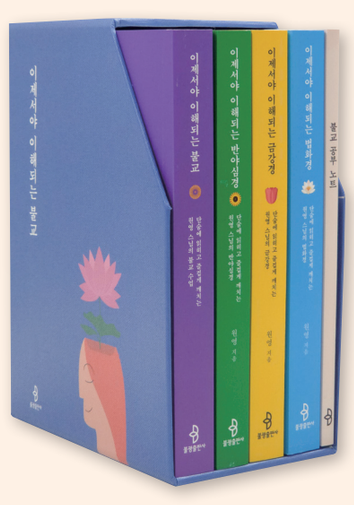
일시 2026 6.13. 토요일 3시

장소 대구 엑스코 동관 4홀 메인 무대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브랜드

불교 공부는 어렵지 않다
원영 스님과 함께라면!

주요 교리부터 핵심 경전까지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공부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세트, 전 4권)
원영 지음 | 72,000원

-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 [부록] 불교 공부 노트